

# 청정 무주에서 펼쳐지는 영화소풍 함께 즐겨요

제4회 산골영화제  
서울에서 공식 기자회견  
'창·판·락·술·길'  
5개 섹션 27개국 82편  
6월 2~6일 5일간 상영



이번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황정수 조직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유기하 집행위원장과 조지훈 부집행위원장이 영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올해 무주산골영화제의 홍보대사 페스티벌 프렌즈에 선정된 배우 오지호, 손은사의 위촉식이 진행됐다.

오는 6월 2일(목)부터 6일(월)까지 열리는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의 공식 기자회견이 4월 28일(화) 오전 11시에 서울 동작구의 '아트나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공식 행사인 기자회견은 총 29개 매체 80여명의 기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황정수 조직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영화제의 특징 및 주요 프로그램 공개, 그리고 개막작 소개로 이어졌다. 이후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영화제의 얼굴인 홍보대사 배우 오지호, 손은사의 '페스티벌 프렌즈(Festival Friends)'의 위촉식이 진행됐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황정수 조직위원장은 "무주산골영화제는 3회 만에 영화인들과 관객이 주목하는 영화제로 성장했다. 이에 무주군은 무주산골영화제가 반딧불축제, 그리고 내년에 있을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와 함께 무주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의 시작을 열었다.

이어 유기하 집행위원장의 인사말과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휴양과 휴식의 영화제다. 지난 3회의 기존 콘셉트를 유지하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영화제들은 닫힌 공간에서 진행되지만, 무주산골영화제는 자연 속에서 어우러지는 열린 영화제를 지향한다. 우리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라는 공간을 구심점 삼아 수도권이 아닌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영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 다음으로 조지훈 부집행위원장은 올해 영화제의 세부 특징과 개막작 및 5개 섹션의 주요 상영작에 대한 소개와 개막작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작 <2016 필름 판소리, 춘향편>은 신상욱 감독, 최은희, 김진규 주연의 1961년 영화 <춘향>과 판소리 라이브 연주를 결합한 복합영화공연으로 <가족의 탄생>(2006)과 <만추>(2010)를 연출한 김태용 감독이 총연출을 맡고 실력과 소리꾼 이소연과 국내 최고의 색소포리스트인 손성제가 참여한다.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6 필름 판소리, 춘향편>은 신상욱 감독의 <춘향>을 원본으로 하여 원본 영화의 이미지와 사운드에 짧은 소리꾼의 소리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더해 진정한 의미의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재창조되어 무주를 찾은

관객에게 특별하고 색다른 영화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지난 3년간 1회 <청춘의 십자로>(연출: 김태용), 2회 <이국정원>(연출: 전계수), 3회 <어느 여름밤의 꿈, 찰리 체플린>(연출: 김종관)을 통해 과거 영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공연과 결합한 형태의 개막작을 선보여 많은 관객으로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올해 무주산골영화제의 홍보대사 '페스티벌 프렌즈'에 선정된 배우 오지호, 손은사의 위촉식이 진행됐다. '페스티벌 프렌즈' 위촉사에서 배우 오지호는 "특별한 매력을 가진, 자연과 영화, 관객이 어우러지는 무주산골영화제의 페스티벌 프렌즈로서 개막식 참석, 핸드프린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공식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주산골영화제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페스티벌 프렌즈'로서 포부를 드러냈다.

배우 손은사는 "1회 영화제 그린카펫을 통해 무주산골영화제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영화제가 자연 속에서 진행된다는 게 놀라웠고,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때의 기억이 좋아서 다시 참석하고 싶었는데 올해 페스티벌 프렌즈로 홍보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부담도 되지만 설레기도 한다. 공식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영화제를 즐기고 싶다"라며 활기찬 소감을 밝혔다. 배우 오지호와 손은사는 페스티벌 프렌즈로서 개막식 참석, 핸드프린팅 행사 등의 공식 활동에 참석하여 영화제를 알리고 관객과 가까워지려 영화제를 즐길 예정이다.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군 등나무운동장에서 진행되는 6월 2일(목)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6일(월)까지 4박 5일간 무주 예체문화관, 덕유산 국립공원 대집회장 등 청정 자연으로 유명한 전라북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기자

## 완주 대둔산도립공원 특별한 산악문화행사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완주군 대둔산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대둔산 산악문화행사가 열린다.

완주 '대둔산 산악문화행사'는 호남의 명산인 대둔산 명소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대둔산도립공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산악행사와 문화행사로 나눠지며, 첫 행사는 오는 30일 토요일 대둔산 잔디광장에서 산악등반대회와 전국 비보이퍼포먼스대회(스피릿댄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산악행사는 4월 춘계 등반대회, 10월 숲 해설사와 떠나는 대둔산 탐방으로 이뤄지며, 문화행사는 4월 전국댄스경연대회, 5월부터 8월은 숲속 작은음악회, 10월에는 가을콘서트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둔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아트마켓, 완주서각작품 전시회, 전래놀이대회, 산악구조대의 장비교육 및 지역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의 장이 열린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대둔산 명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산악문화행사에 전국인산악인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여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대둔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대둔산 상가 및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둔산 산악문화행사와 전국 비보이퍼포먼스대회(스피릿댄스) 참가를 원하는 단체나 팀들은 군청 대표 홈페이지와 문화예술동호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행사관련 참여 문의는 (사)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사무실(063-291-7246)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인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대표 이재갑)에서 주관하여 추진한다. /완주=이종복기자

## 전주전통문화관, 문화시설 새단장

2002년 개관한 전주전통문화관이 14년 된 노후 문화시설을 재정비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이에 따라 한벽궁전은 시설 보강 및 조경 공사 실시로 285석 규모를 갖춘 자연친화적인 중립극장으로 변모하며, 각종 문화프로그램 강화로 문화 제반 시설을 갖추게 된다.

문화관은 문화프로그램과 관련해 '어울수! 놀러오쇼'라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 행사를 진행한다. 체험과 공연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오후 6시 교육체험실과 오후 7시 혼례마당에서 각각 펼쳐진다.

이번 27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봄꽃을 이용한 꽃 부침 '화전 만들기'와 '크림, 달콤한 봄날의 힐링콘서트'가 열린다. 힐링콘서트는 파살이 날거리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해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어쿠스틱 사운드로 서정적인 정취를 느끼게 한다.

전주전통문화관 송재명 관장은 문화관 시설의 재정비로 전주 전통이 가 되살아 날거리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전통미의 맥을 이어가 문화관이 전주의 핵심 문화시설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들 행사의 관람은 무료며,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접수 및 선착순 100명에 한해 참가 가능하다. 체험 및 공연 문의는 각각 280-7046, 280-7009 /정혜는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기념

## '셰익스피어 인 시네마' 특별전

'전주, 봄의 영화도시' 전주국제영화제가 211편의 영화 꽃을 피운다.

그 많은 영화 중 어떤 것을 봐야할지 망설여진다면 전주국제영화제가 추천해주는 작품들로 영화의 봄날을 만끽해 보자.

축제가 기간 동안 '봄날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주제로 각양각색의 영화를 소개한다.

봄날의 셰익스피어를 좋아하세요?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기념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셰익스피어 인 시네마' 특별전을 마련한다.

특별전은 셰익스피어 원작에 대한 충실

함과 재해석을 기준으로 이 시대에 다시 음미해 볼 만한 영화와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통해 새롭게 구현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 리어왕 - 피터 브룩, 1971년 작  
리어 왕은 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왕국을 셋으로 분할한다. 막내딸 코델리아가 정직한 답변을 내놓자 격분한 리어왕은 음흉한 언니들에게 통치권을 넘겨버린다.

▲ 맥베드 - 로만 폴란스키, 1971년 작  
영웅으로 칭송 받던 맥베드는 광기 어린 이빨에 사로잡혀 왕을 살해하는데,



영화 <맥베드> 로만 폴란스키 작

피로 물든 결말로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이 감독 특유의 피기하고 악몽과도 같은 언어로 부활한다.

▲ 템페스트 - 데릭 저먼, 1979년 작  
원작 희곡이 담고 있는 식민주의 복수, 그리고 화해의 테마를 그린 저먼의 시선

으로 영화화 했다. 셰익스피어의 은폐된 마지막 집필작으로 70년대 특유의 핑크 감각으로 재생된다.

▲ 햄릿 - 케네스 브래너, 1966년 작  
햄릿 왕자는 죽은 부왕의 유령과 마주친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작은 아버지임을 알게 된 햄릿은 복수를 준비한다. 영국에서 셰익스피어를 가장 많이 무대화, 영화화한 작품으로 케네스 브래너가 주연과 연출을 맡았다.

전주국제영화제 이상용 프로그래머는 이들 영화와 관련 "현대적 감성과 원작의 특징인 강렬한 욕망을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평했다. 광범함과 일상적인 글로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어떻게 영화로 구현됐는지 영화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혜는 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4월 27일>

▷ 쥐띠  
49년생: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60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72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는 운이다.  
84년생: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운.

▷ 소띠  
49년생: 동기끼리의 불화로 어려움이 따르는 운.  
61년생: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해야 문제가 없다.  
73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고생을 덜어주는 방법임을 잊지 말자.  
85년생: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진행하라.

▷ 호랑이띠  
50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선배나 손윗사람을 찾아가라.  
62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긴다.  
74년생: 겉으로는 화려해보이나 실속이 없을 수 있는 운으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겠다.  
8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슬땀과 시비가 따르는 운.

▷ 토끼띠  
51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은 있으나 큰 해는 없다.  
63년생: 일적인 능력이 올라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75년생: 횡재수가 들어오니 금전 거래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겠다.  
87년생: 식욕이 오히려 모임을 갖거나 식사약속을 하는 것도 좋은 운.

▷ 용띠  
52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패수가 따른다.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내주어야 하는 운이다.  
64년생: 사람들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76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으나 속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라.  
88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다.

▷ 뱀띠  
53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니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6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운이니 적극 진행하라.  
77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된다.  
89년생: 동기끼리 한미를 한뜻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일을 진행하라.

▷ 말띠  
54년생: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운.  
6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할 운이다.  
78년생: 허리를 앞으면 들을 얻을 수 있는 운.  
90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

▷ 양띠  
55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는 좋지 않다.  
67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니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9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불화가 예상된다.  
91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뤄라.

▷ 원숭이띠  
55년생: 원형은 삼가는 것이 좋다.  
66년생: 평소 애만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80년생: 평소 애만 있던 복으로 돌아오는 때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적 소모는 많고 얻는 결과는 적다.

▷ 닭띠  
57년생: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어려운 운.  
69년생: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의 불화가 예상된다.  
8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좋은 일하고 원만 듣는 격이다.  
93년생: 건강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운.

▷ 개띠  
4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가 따르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운이다.  
59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니 거리를 두어라.  
70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82년생: 크게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욕심을 버려라.

▷ 돼지띠  
47년생: 경사가 있거나 식욕이 따른다.  
59년생: 동기끼리로 인해 일이 성사되고 재능 발휘가 잘 되는 때니 활동하기에 좋은 운이다.  
71년생: 시소한 것에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때다.  
83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